

《三藏》·《蛇龍》攷

崔 龍 洙

<目 次>

- | | |
|---------------|----------------|
| I. 序 論 | 2. 연대와 장소에 대하여 |
| II. 原詞에 대한 再考 | IV. 三 藏 |
| III. 작자와 연대 | V. 蛇 龍 |
| 1. 작자에 대하여 | VI. 結 論 |

I. 序 論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双花店〉을 고려 충열왕 때 민간에 유행하던 俗謠로 규정하고, 그것을 男女相悅의 淫詞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견해는 여타의 고려 속악이 작자·연대 미상이고, 그리고 이런 요소가 바로 고려 속악을 특징짓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여, 그것을 유행하는 俗謠로 단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가 아무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진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三藏〉·〈蛇龍〉은 「高麗史」 樂志 俗樂 條에 29~30번째 나오는 俗樂名이다. 그 중 〈三藏〉은 〈双花店〉의 제 2연을 漢譯한 것이라 하여 〈三藏〉과 〈双花店〉을 同歌로 취급하여 왔다. 그로 인해 〈三藏〉과 함께 기사된 〈蛇龍〉은 물히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엄연히 「고려사」 악지 속악 조에는 〈三藏〉과 〈蛇龍〉이란 題하에, 그 배경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러나 〈双花店〉이란 제목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 男女相悅의 淫詞로 규정하여 왔다. 이것은 그야말로 표면적인 뜻에 불과하다. 그 층층을 살펴 보면, 거기에는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考에서는 〈三藏〉과 〈双花店〉의 原詞 여부를 밝히고, 그 작자와 제작 연대를 구체화하며, 그 가창 장소를 규명해 본다. 또한 지금까지 경시해 왔던 〈蛇龍〉을 고구해 보고자 한다.

Ⅱ. 原詞에 대한 再考

일반적으로 ‘장가’나 ‘별곡’이니 또는 ‘속요’니 하는 高麗 俗樂 중에는 작자 미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작자 미상의 민요로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高麗史」樂志 俗樂條에 실린 것들은 宮中舞樂으로 歌唱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민요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창작곡도 있을 수 있다.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詩歌群은 (1) 구비 전승되었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 한글로 정착된 것, (2) 「高麗史」樂志 및 他 文集에 歌名, 해설, 또는 譯詩로 기록된 것, (3) 「高麗史」樂志 및 他 文集에 漢語體로 기록된 것,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구 대상물 거의 (1)에 국한하여 왔다. 더구나 〈三藏〉은 〈双花店〉이라는 歌名 아래 (1)이 기본 (2)는 참고 자료가 되어 다루어졌었다. 이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三藏〉과 〈双花店〉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이 있다. 〈三藏〉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及庵先生詩集」의 小樂府 三藏과 「高麗史」樂志 俗樂條의 자료 및 속요라고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리라 본다.

지금까지 선학들이 〈双花店〉 연구를 함에 있어서 〈双花店〉과 〈三藏〉을 동일시 하여 왔다. 〈三藏〉이 고려 忠烈王代에 붙여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三藏〉이 〈双花店〉의 부분은 될 수 있어도 〈双花店〉이 〈三藏〉의 부분은 될 수 없다. 그런데 〈三藏〉을 〈双花店〉 제 2연의 漢譯으로 보아 왔다. 蛇龍 역시 漢譯된 것으로 보아 왔다. 이것은 梁柱東의 「麗謠箋注」에서 “双花店”條라고 하여

“樂章歌詞 所載 麗史樂志 및 列傳 吳潛(卷一二五 列傳 三八)에 漢譯記載된 「三藏」은 本歌 第二聯이니 本歌가 忠烈王朝 所産임을 確知할 수 있다. 本歌(双花店)의 名稱은 麗史樂志엔 第二聯만을 取하였기 때문에 「三藏」이라 하였으나 樂章歌詞에는 全篇의 首聯 「双花店」으로써 이를 命名하였다”

고 〈三藏〉과 〈双花店〉을 동일시킨 이후, 줄곧 그렇게 다루어 왔다. 그리하여 〈三藏〉·〈蛇龍〉을 俚語體의 漢譯歌로 간주하여 왔다.

〈三藏〉·〈蛇龍〉의 原詞가 俚語體의 漢譯歌가 아니라 漢語體인 것이 증명되면 〈三藏〉·〈双花店〉의 原詞 여부가 해결되며, 또한 〈蛇龍〉도 俚語體의

漢譯이 아니라, 漢語體임이 밝혀질 것이다.

첫째, 「高麗史」樂志 俗樂의 31편 중 〈三藏〉·〈蛇龍〉은 俚語體 24편에 들어가지 않는 점이다. 「高麗史」樂志 俗樂 條 첫 머리를 보면,

高麗俗樂考諸樂譜載之其動動及西京以下二十四篇皆用俚語¹⁾

와 같이 되어 있다. 俗樂은 모두 31편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24편은 俚語體로 解詩 내지는 해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6편은 漢語體로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舞臺는 歌詞가 생략되었다. 즉 俚語體로 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琴學士琴儀 王舜門生云云 俚語凡歌詞中以
俚語 不載者倣此²⁾

(翰林別曲)

“云云俚語”라 하여 「樂章歌詞」의 語句 “위날조차껏부니잇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략되었다. 그리고 계속 俚語體로 된 부분은 “云云俚語”라 하고 생략되어 있다. 또한 〈紫霞洞〉도 끝 부분에 “云云俚語”라 표기되었다. 또한 〈動動〉條를 보면

動動之數其歌詞多有頌禱之詞蓋效仙語而爲之然詞俚不載³⁾

라 하여 俚語는 실지 않는다고 하였다. 순 국어의 표기는 俚語라서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생략한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史」樂志에 歌詞가 실린 것은 〈風入松〉·〈夜深詞〉·〈翰林別曲〉·〈三藏〉·〈蛇龍〉·〈紫霞洞〉의 6편이다. 또한 歌詞에 대한 해설도 곁들여 있다. 그러므로 歌詞가 실린 것은 俚語體가 아닌 漢語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無尋는 歌詞가 전하지 않는다. 「高麗史」樂志 〈無尋〉條에 보면

無尋之戲出自西域其歌詞多用佛家語且雜以方言難於編錄故存節奏以備當時所用之樂

이라 하여 ‘佛家語’란 말이 있다. 佛家語는 漢語의 表現이다. 거기에 ‘方言’ 즉 俚語가 섞여 있다. 方言이 섞여 있지만 佛家語를 많이 사용하였다. 佛家語는 조선 儒學者들에게는 指彈의 대상이 되었다. 즉 “無尋呈才其歌辭

1) 「高麗史」, 卷七十一, 第二十五, 樂二

2) 「高麗史」, 卷七十一, 第二十五, 樂二

3) 「高麗史」, 卷七十一, 第二十五, 樂二

4 嶺南語文學(第13輯)

專用佛家之語足爲妄誕……”⁴⁾이라 하였다. 또한 無導는 「高麗史」樂志 俗樂條 俗樂 31편 중에 歌名 순서가 두 번째인 데도 “動動及西京以下二十四篇皆用 俚語”라 하였다. 歌名 순서가 ① 動動, ② 無導, ③ 西京, ④ 大同江, ⑤ 五冠山, ……⁵⁾ 三藏, ⁶⁾ 蛇龍, ⁷⁾ 紫霞洞인 데도 〈無導〉를 생략해 버렸다. 즉 “動動及無導以下二十四篇”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無導〉를 제외하고 그 다음 순서인 〈西京〉에 연결하여 “動動及西京以下…”하는 식으로⁸⁾ 표현하였다.

둘째, 閔思平(1295~1359)의 小樂府를 보더라도 〈双花店〉이 아니라 〈三藏〉의 내용이 7언 절구의 漢詩로 되어 있다. 〈三藏〉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은 「及庵先生詩集」의 小樂府에 있는 기록이다. 小樂府 6章 중 〈三藏〉은 及庵이 益齋에게 和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익재는 자기의 소악부에 급암이 화답하지 않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昨見郭翀龍言及菴欲和小樂府以其事一而語重故未也僕謂劉賓客作竹枝歌皆夔峽間
男女相悅之辭東坡則用二妃屈子懷王項羽事綴爲長歌夫豈龍前人乎!及菴取別曲之惑
於意者翻爲新詞可也二篇挑之⁹⁾

이에 대해 及菴은

伏蒙宗伯益齋公錄示近所爲詩數篇其折輩行誘掖後進之意深且切矣雖以庸愚寧不知
惑然自惟拙謬必不能攀和因循至今惶悚聞公恕其通慢之罪再以小樂府二章示之愈感
悚謹和成若干首薰沐繕寫拜呈左右¹⁰⁾

라고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及庵이 益齋의 小樂府에 和答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同一한 題材를 가지고 중복하여 쓰기가 쉽지 않다.

② 유빈객이 지은 죽지가는 남녀상열지사이다.

③ 소동파는 二妃·굴원…등의 고사를 엮어서 長歌를 만들었다.

④ 及庵도 別曲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新詞를 읊겨 보라.

는 것이다. ①은 급암의 말을 益齋가 다시 언급하였고, ④는 ②, ③과 같이

4) 「世宗實錄」, 卷六十五, 十六年, 八月.

5) 朴煥圭, “高麗俗樂 31篇에 대하여”, 「高麗歌謠研究」, 국어국문학회, 정음사, 1979, p.157.

6) 「益齋亂集」, 第四卷 小樂府.

7) 閔思平, 「及庵先生詩集」 第三卷, 第三張.

別曲 중에 느낀 바가 있는 것을 新體의 歌詞로 옮겨라는 것이다. 이제 대해 답안은

- ① 益齋로부터 小樂府 몇 章을 寄示 받았다. 후배를 誘掖하는 뜻에 감사하다.
- ② 拙澁한 능력으로 和答못하였다.
- ③ 益齋가 다시 2章을 보내왔으므로 송구스런 나머지 若干首를 엮어 그의 좌우에 받친다.

는 이런 요지이다. 益齋는 及庵이 和答하는 데는 반드시 同一한 형식·내용으로 말할 필요가 없고, 題材도 자유로이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러니 及庵은 「謹和戎若干首 薰休繕寫」하여 받쳤다. 화답한 약간 首(6章)는 베껴 엮은(繕寫) 것이다. 그 중 하나가 〈三藏〉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及庵의 「三藏」은 그 당시 있던 〈三藏〉을 베껴 編錄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双花店〉이 아니다. 그 〈三藏〉 내용이 「高麗史」樂志 俗樂條의 〈三藏〉과 거의 같다.

三藏社裏點燈去
有社主兮執吾手
倘此言兮出寺外
謂上座兮是汝語
(高麗史樂志)

三藏精廬去點燈
執吾纖手作頭僧
此言若出三門外
上座閑談是必應
(及庵小樂府)

세계, 「高麗史」 편찬자들이 樂志 俗樂條 〈三藏〉·〈蛇龍〉項에 歌詞를 적어 놓고 부연하여 解詩 또는 譯詩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俚語體로 된 것중, 李齊賢, 張晉公이 노래의 뜻을 풀이한 것에는 “解之曰…” 또는 “…作詩解之曰…”이란 말이 들어 있다. 원래 俚語體로 된 歌詞를 漢文解詩로 한 것에는 〈五冠山〉·〈居士戀〉·〈沙里花〉·〈長巖〉·〈濟危寶〉·〈處容〉·〈鄭瓜亭〉·〈寒松亭〉이 있고, 漢語體로 歌詞가 실린 것에는 〈風入松〉·〈夜采詞〉·〈翰林別曲〉·〈三藏〉·〈蛇龍〉이 있다. 여기에서, 「高麗史」樂志 俗樂條를 자세히 살펴 보면 漢語體와 俚語體의 기록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6편의 漢語體는 鄭麟趾 등이 歡詞를 적어 놓고 그 다음 해설을 붙인 데 반해, 8편의 俚語體는 해설을 먼저 하고 다음에 “…作詩解之曰”하고 解詩를 실어 놓았다. 즉 체제가 다른 것이다. 〈三藏〉·〈蛇龍〉은 漢語體의 체제와 같다. 그러나 이 작품을 소개하는 데서 “麗史解詩”란 添記를 함으로써⁸⁾ 讀者로 하여금 原歌를 鄭麟趾 등이 「高麗史」에서 解詩한 것처럼 오

8)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47, p. 23.

해하게 한 경우도 있다. 만약 鄭麟趾 등이 解詩하였다면 李齊賢이나 張晉公이 解詩한 것을 “作詩解之曰…”이라고 한 것처럼 “麗史解之曰…”이라고 하였을 것이다.⁹⁾ 편찬자들이 <三藏>·<蛇龍>을 解詩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네째, 「高麗史」樂志 俗樂條의 <三藏>·<蛇龍>項을 보면 原歌詞가 기록되고, 그 해설에 “…教閱此歌…”라 된 점이다. “教閱此歌”에서 ‘閱’은 ‘聽’의 뜻이 아니라, ‘讀’의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 듣는 것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歌詞를 눈으로 읽는 것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본다. 그 당시 기록 문자가 한글이 아니므로 漢語體로 쓰였을 것은 뻔하다. 歌詞에 의미를 두면서도, 만약 그 당시 <双花店>이 <三藏>이라면, 왜 <三藏>을 <双花店>이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原詞는 <双花店>이 아니라 <三藏>이다.

다섯째, <三藏>과 <双花店>이 합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三藏>이나 <双花店>이 모두 첫 어절에 있는 단어로 題하였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시리>·<청산별곡>·<서경별곡> 등도 역시 첫 어절에 있는 단어로 題하였다. <三藏>句가 <双花店> 2聯에 合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類는 高麗俗樂 가운데 많이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구스리아줄가

구스리바회예더신돌

위두어령성두어령성다링더리

긴히싼아줄가

긴히싼그즈리잇가나논

위두어령성두어령성다링더리

즈른히를아줄가

즈른히를외오곰녀신돌

위두어령성두어령성다링더리

신
信 잇둔아줄가

신
信 잇둔그즈리잇가나논

위두어령성두어령성다링더리.

(西京別曲 第二聯)

구스리바회예더신돌

9) 朴煥圭, 앞의 논문, p.165.

구스리바화예더신들
긴히든그즈리잇가
즈믄히물의오곰너신들
즈믄히물의오곰너신들
신
잇
든
그
즈
리
잇
가

(鄧石歌 第六聯)

從然巖石落珠璣
纓纓固應無斷時
與郎千載相離別
一點丹心何改移

(益齋小樂府譯詩)

- 어름우희갓넙자리보와넙과나와어러주글만명
어름우희갓넙자리보와넙과나와어러주글만명
정情둔오늬범버디새오시라더새오시라.

(滿殿春別詞 第一聯)

十月曆氷水
寒凝竹葉樓
與君寧凍死
遮莫五更鷄

(金守溫 述樂府辭)

- 月河高高的上來些
遠遠的照着時阿
漁磯魚樵釣里
阿弄多弄日日尼

(投壺雅歌譜의 阿弄曲)

돌하노피곰도드사
어기야머러곰비취오시라
어기야어강도리
아으나롱더리

(井邑詞의 부분)

- 녀시라도님을홀더너넋^경너기다니
녀시라도님을홀더너넋^경너기다니
벼기더시니뉘러시니잇가뉘러시니잇가

(滿殿春別詞 第三聯)

녀시라도님은홀더너져라아으
벼기더시니뉘러시니잇가

(鄭瓜亭曲의 부분)

憶君無日不霑衣
正似春山蜀子規
爲是爲非人莫問
只應殘月曉星知

(益齋小樂府譯詩)

8 嶺南語文學第(13輯)

○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脡隱吾下於叱古
二脡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新羅處容歌)

東京불곤드래새도룩노니다가
드러내자리 톨보니가긔리네히로새라
아으들흔내해어니와들흔뉘해어니오

(고려 처용가)

新羅昔曰處容翁
見說來從碧海中
貝齒頰唇歌夜月
鳶肩紫袖舞春風

(益齋小樂府譯詩)

○ 月白寒松夜

波安鏡浦秋
哀鳴來又去
有信一沙鷗

(寒松亭)

寒松亭 둘 불근 밤에 鏡浦臺에 물결잔잔
有信호 白鷗는 오락가락 항진하는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논고

(紅粧, 樂學拾零)

寒松亭 둘 불근 밤에 鏡浦臺에 물결잔잔
有信호 白鷗는 오락가락 항진하는
엇더타 우리 王孫은 가고 아니 오논고

(黃眞伊, 近世時調集)

○ 三藏寺 삼장사에 불허라가고신딘그델 社主 사주 | 내손모글주여이다

이말스미덜맞기나명들명다로려거디러쪼고맛간삿기 上座 상좌 | 비마리라호리라
더러등성다리러디러다리러디러다로려거디러다로려디자리에나도자라가리라위위
다로려거디러거잔떡마티뒹거츠니얼다

(双花店 第二聯)

三藏社裏點燈去

三藏精廬去點燈

有社主兮執吾手
倘此言兮出寺外
請上座兮是汝語

(高麗史樂志, 三藏)

執吾纖手作頭僧
此言若出三門外
上座閑談是必應

(及巖集)

○ 有蛇含龍尾
聞過太山岑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

(高麗史樂志, 蛇龍)

도고단 실비알이(라서) 龍의 소리 담북(이) 물고
泰山峻嶺을(으로) 넘단말이 이서이다
원놈이 원말을 하여도 남이 짐작하여라(하지소)

(槿花樂府)

이상의 예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意譯 및 直譯	高麗俗樂名	비 고
益齋小樂府	西京別曲 鄭石歌	第二聯 第六聯(끝연)
述樂部辭	滿殿春別詞	第一聯
投壺雅歌譜 (阿弄曲)	井邑詞	第一句
益齋小樂府	滿殿春別詞 鄭瓜亭曲	第三聯 第二句
〃	處容歌(高麗) 〃 (新羅)	부 〃
紅粧의 時調 黃眞伊의 時調	寒松亭	全
及庵小樂府	双花店 三 藏	第二聯 全
槿花樂府 時調 끝부분 3문	蛇 龍	全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현재 전하고 있는 高麗 俗樂 歌詞가 출입이 번다하여 어느 것이 原詞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본 고에서는 <三藏>이 原詞임

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蛇龍〉 또한 마찬가지이다.

Ⅲ. 작자와 연대

1. 작자에 대하여

高麗 俗樂 가운데 忠烈王代 불리워진 노래는 〈太平曲〉·〈三藏〉·〈蛇龍〉·〈雙鶯曲〉·〈楊花辭〉·〈萬壽山〉 등이다. 이 중에 〈太平曲〉은 金元祥, 〈楊花辭〉는 韓宗憲가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雙鶯曲〉은 작자 미상이고, 〈萬壽山〉은 忠烈王 20년 정월에 유행한 童謠이다. 〈三藏〉·〈蛇龍〉은 작자·연대 미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鄭炳昱은 〈三藏〉을 〈雙花店〉과 同一귀급하여, 그 작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 좁혀 倖臣의 作이라 하였다.¹⁰⁾ 呂增東도 또한 〈三藏〉과 〈雙花店〉을 同一歌로 보고 작자와 연대를 밝혀 놓았다.¹¹⁾ 그러나 앞 두 논문도 역시 〈三藏〉·〈雙花店〉을 同歌로 귀급하여 다루었고, 〈雙花店〉이라는 題하에 〈三藏〉의 本적이 소홀해졌으며, 〈蛇龍〉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前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雙花店〉이 아니라 〈三藏〉이 忠烈王代에 歌唱되었다. 그러던 데서 지금까지 작자를 누구로 보았는가 개관해 보기로 한다. (〈三藏〉을 〈雙花店〉이라 본 것)

1) 民衆俗謠說

〈三藏〉이 流行 俗謠이던 것이 宮中에 유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梁柱東에서부터다. 氏는

“...어느 倖臣의 所作이라기보다 차라리 當時 京都附近에 流行된 俗謠를 그대로 採拾이겠다.”¹²⁾

고 하였다. 徐首生도

“그러면 ‘雙花店’(三藏)·‘蛇龍’·‘太平歌’ 등은 모두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였으며...”¹³⁾

라고 하여 〈三藏〉·〈蛇龍〉이 당시에 유행하던 俗謠라고 규정하고 있다.

2) 妓女(遊女)所作說

10) 鄭炳昱, 쌍화점고, 『서울대 문리대 학보』, 10권 1호, 1962.

11) 呂增東, 『雙花店』考究, 其1, 語文學 通卷 19호, 1968.

12) 梁柱東, 앞의 책, p. 253.

13) 徐首生, “益齋小樂府研究”, 『慶北大論文集』 第五輯, 1961, p. 45.

全圭泰는

“當代의 倭臣이 지었다기보다도 일찌기 路柳塙花가 지은 노래가 當時에 널리 流行된 것을 採取하여 宮中樂으로 演奏된 것 같다.”¹⁴⁾

고 하고, 또

“鄭炳昱님은 ‘雙花店’같은 노래를 창작 시가로 보고, 그 작자는 忠烈王朝에 倭臣이 지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 노래의 전체적인 무우드로 보아 ‘교육받은 사람이 지은 것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고려의 倭臣에 의해 당초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해 내려온 ‘雙花店’은 原歌와는 거리가 멀 정도로 改作되었음이 틀림없다.”¹⁵⁾

고 하였다. 그리고 崔東元은

“〈三藏〉과 〈蛇龍〉은 諸道에서 궁중으로 들어온 기녀들에게서 얻어진 노래였을 지로 모르며...”¹⁶⁾

라고 하여 순전한 개인의 창작으로 보는 것이 의문이라 하였다.

3) 倭臣輩所作說

鄭炳昱은 梁柱東의 俗謠說을 주관적인 해석의 소산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高麗史」卷 71, 志, 樂 2의 “敎閱此歌”와, 「高麗史」卷125, 列傳, 간신 1의 오잡 조의 “敎以新聲”이란 것과, 그리고 김 원상 조에 김 원상이 〈太平曲〉이란 新調를 지어 적선패라는 기녀에게 가르쳤음을 근거로 하여 작자를

“충렬왕 때의 행신들 오잡·김원상·석천보·석천경의 합작이거나 그 중 어느 한 사람의 작업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밝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¹⁷⁾

고 하였다. 그리고 김 명호도

“...후세 儒者들에 의해 ‘新聲淫詞’로 규탄받은 이러한 노래들은 왕 측근의 嬖幸들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¹⁸⁾

14) 全圭泰, 「韓國古典文學의 理論」, 正音社, 1966, p. 214.

15) 全圭泰, “高麗歌謠의 內面的 研究”, 「고려가요의 연구」 국어국문학연구총서 2, 정음사, 1979, p. 104.

16) 崔東元, “高麗俗謠의 享有階層과 그 性格” 「高麗歌謠研究」 한국문학연구총서, 새문社, 1982, p. II-99.

17) 鄭炳昱, 「韓國古典詩歌研究」, 신구문화사, 1977, p. 119.

18) 金明浩, “고려가요의 전반적 성격”, 「古典詩歌論」, 金學成, 權斗煥 編, 새문社, 1984, p. 74.

고 하였고, 이 명구는 作者가 貴族社會人에 속한다고 하여 倖臣輩所作說과 同軌를 이루고 있다.

4) 吳潛所作說

呂增東은 列傳條에 의거하여 吳潛 等の 所編歌謠로 돌린 것은 趙潤濟 박 사략에 없으나, 그나마 原文提示를 하지 않고 말았다고 하며,

“高麗歌謠 双花店歌는 巷間流行俗謠 아닌 新聲으로 忠烈王의 倖臣 吳潛所作이 었다.”¹⁹⁾

라고 하였다. 李能雨는

“‘双花店’의 新聲을 가르친 吳潛의 인물은 아래와 같이 못되어, 王父子를 離間 시킨, 실히 姦佞卑賤한 바가 있는 것이다.”²⁰⁾

라 하여 역시 吳潛所作說을 말하고 있다.

이상 諸說을 보면 1)은 2)와 同軌를 이루며, 3)은 4)와 같다고 볼 수 있다. 1), 2)의 流行俗謠說이나 妓女所作說은 〈双花店〉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몰라도 〈三藏〉·〈蛇龍〉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은 說이다. 분명히 〈三藏〉·〈蛇龍〉의 연대·작자를 밝혀 볼 수 있다. 그러나 3)은 어느 정도 근접했으며, 4)의 說은 筆者와 같은 견해이다. 하지만 3), 4)도 역시 〈三藏〉과 〈双花店〉을 同歌로 다루었다. 그러면 〈三藏〉·〈蛇龍〉의 작자를 밝혀 보고자 한다.

1) 三藏…蛇龍…右二歌忠烈王朝所作王狎群小好宴樂倖臣吳祈 金元祥內僚石天輔天卿等務以聲色悅以管絃房太樂才人爲不足遣倖臣諸道選官妓有姿色技藝者又選城中官婢及女巫善歌舞者籍置宮中衣羅綺戴馬尾笠別作一隊稱爲男粧教閱此歌與群小日夜歌舞褻慢無復君臣之禮供億賜與之費不可勝記²¹⁾

2) 吳潛初名祁同福縣人父諸官 至贊成事潛忠烈朝登第累官 至承旨王狎群小好宴樂潛與金元祥內僚石天輔天卿等爲倖務以聲色容悅謂管絃坊太樂才人不足分遣倖臣選諸妓有色藝者又選京都巫及官婢善歌舞者籍置宮中衣羅綺戴馬尾笠別作一隊稱男粧教以新聲其詞互…又互…高低緩急皆中節²²⁾

3) 金元祥忠烈朝登第稍選主簿有妓謫仙 來得幸於王元祥與內侍朴允材俱爲 妓同里

19) 呂增東, 앞의 논문, p. 30.

20) 李能雨, “高麗歌謠의 性格”, 「高麗歌謠研究」, 국어문학연구총서 2, 정음사, 1979, p. 40.

21) 「高麗史」, 卷七十一, 志卷二十五, 樂二

22) 「高麗史」, 卷一百二十五 列傳, 卷三十八, 姦臣一, 吳潛

閉相往來元祥製新調太平曲令妓習一日內宴歌之王妬且變色曰此非能文者不能誰所爲耶對曰妾兄元祥允材所製王喜曰有才如此不可不用以元祥爲通禮門祇候允材爲權務官

23)

4) 其未達也與一時名士相往還群飲無虛日號楊花徒宗愈醉輒起舞謔楊花辭曰待如晦清風飛楊到黃閣中識者皆異之²⁴⁾

위 기록들은 《三藏》·《蛇龍》의 作者를 밝히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된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① 忠烈王은 宴樂을 좋아 했다.
- ② 倖臣 오기·김원상, 내시석천보·석천경등이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썼다.
- ③ 관현방의 才人이 부족하여 여러도에 姿色·技藝있는 자, 성안에 善歌舞者를 뽑아 궁중에 籍置했다.
- ④ 이들을 男粧이라 칭하고, 왕이 敎閱此歌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소인배와 宴樂했다.
- ⑤ 이에 쓰인 비용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다.
- ⑥ 천보 등이 수강궁에서 장악을 치고 향연에 몰두했다.
- 2) ① 오잠은 충열왕 때 등제하여 승지에까지 이르렀다.
- ②, ③은 1)항의 ②, ③과 같다.
- ④ 男粧別隊를 만들어 敎以新聲하니 고저와 완급이 다 절주에 맞다.
- 3) ① 김 원상은 충열왕 때 등제 내시 박 윤재와 같이 기녀의 동리 안에 살았다.
- ② 적선태라는 기생이 있어 왕의 사랑을 받았다.
- ③ 김 원상은 製新調太平曲하여 기녀에게 익히게 한 다음 내연에서 부르게 하였다.
- ④ 왕이 좋아하여 김 원상·박 윤재에게 벼슬을 올려 주었다.
- 4) ① 韓宗愈가 〈楊花辭〉를 지었을 당시, 楊花徒라 할 정도로 건달이었다.
- ② 〈楊花辭〉를 노래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충열왕은 宴樂을 좋아했다. 이렇게 宴樂을 좋아하는 충열왕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 倖臣들은 온갖 수단을 다 부렸다. 오잠은 그 총 책임자가 되어 諸道에 姿色이 있고, 技藝있는 자를 뽑고, 성 안에 善歌舞한 자를 뽑아 궁중에 두면서 別隊를 편성하여 왕에게 아첨했다. 이러

23) 「高麗史」, 卷一百二十五, 列傳 卷第三十八, 金元祥.

24) " , 卷一百十, 列傳 卷第二十三, 韓宗愈.

한 상황에서 오잠은 〈三藏〉·〈蛇龍〉을 지은 것이다. 더 구체적인 증거는 앞에 든 예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추출할 수 있다.

첫째, ‘教閱此歌’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教以新聲’이란 것에서 더 구체화된다.

세째, 金元祥이 〈太平曲〉을 지은 사실에 대해 「高麗史」列傳 金元祥條에 설명하고 있고, 또한 韓宗愈가 楊花辭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高麗史」列傳 韓宗愈條에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藏〉·〈蛇龍〉을 역시 「高麗史」列傳 吳潛條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倖臣 가운데에서도 吳潛條에 〈三藏〉·〈蛇龍〉이 기록되었음을 볼 때, 작자는 吳潛이라 할 수 있다.

만약 遊女 作이거나 流行俗謠라면, 姿色이 있고, 技藝있고, 그리고 善歌舞者를 궁중에 적치하여 ‘教閱此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教閱此歌’를 보면 역시 ‘聽’인 소리보다 ‘讀’인 가사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官妓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또한 ‘教以新聲’이다. ‘~新聲’으로 가르친 것은 바로 오 잠이다. 김 원상이 적 선택에게 太平曲을 지어 가르쳤듯이 오 잠이 官妓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三藏〉·〈蛇龍〉이 「高麗史」樂志에 기록되어 있지만 列傳 오 잠條에도 기록된 점이 바로 작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된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太平曲〉이 김 원상조에, 〈楊花辭〉가 한 중유조에 기록된 것 과도 같은 것이다.

이상에서 고구한 바와 같이 〈三藏〉·〈蛇龍〉은 충렬왕대 작이며 그 작자는 오잠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유행 속요가 아니라 개인 창작곡인 궁중 무악인 것이다.

2. 연대와 장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諸家は 〈双花店〉 연구를 함에 있어서 〈三藏〉·〈蛇龍〉項을 자료로 하였다. 즉 〈三藏〉을 〈双花店〉과 同歌로 다루었다. 그리고 〈双花店〉의 창제 시기를 「高麗史」에 근거하여 충렬왕대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러 증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렬왕 5년(1279)에서 충렬왕 11년(1285)을 창작 연대로 잡고 있다.

“遊興에 關係되는 것을 年表를 中心으로 摘出하면 ① 四年에 馬堤山에다가 壽康室을 지었고, ② 五年 三月에 新宮을 竹坂洞에 일으켰고…중략…⑦ 十一年 正月 王, 公主, 世子와 함께 平州溫井에 遊獵함이 나오고, 十一年 後에는 全無한

것이다.²⁵⁾

러 증등은 官妓들이 지방에서 선발되어 궁중에 적을 두게 된 것이 충렬왕 5년이고, 충렬왕 11년 후에는 遊興에 관계되는 것이 全無하다고 하여 〈双花店〉이 불려진 때를 충렬왕 5년에서 11년이라고 했다. 충렬왕 5년에 지방 妓들이 궁중에 올라왔다고 하여 그 때 〈双花店〉이 歌唱되었다는 근거도 없으며 충렬왕 11년 이후 遊興이 全無하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다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충렬왕 14년(1288) : 正月 壬寅에 內殿에서 宴會하는데 王이 자주 춤을 추니 공주가 말려도 듣지 않았다. 同 三月 丁亥에 左右翼 萬戶 羅裕, 韓希愈, 張舜龍 등이 왕을 內殿에서 향연하는데 술이 취하매 왕이 일어나 춤도 추고 손뼉을 치며 스스로 노래하였다.
- 충렬왕 21년(1295) : 4月 甲午에 賞花宴을 香閣에서 設하고 閣後에 따로이 帳殿을 開設하여 크게 宴樂을 베풀었는데 中郎將 文萬壽가 물을 끓여 遊戲하고 靑蠟絹을 오려 芭蕉를 만드니 왕이 기뻐하여 白金 三斤을 賜하였다.
- 충렬왕 22년(1296) : 4月 庚戌에 賞花宴을 香閣에서 設하니 大學士 鄭可臣이 시를 지어 賀하였다. 乙丑에 都僉議郎舍와 禁內文官 및 學官에게 命하여 鄭可臣의 賞花內宴詩를 和答하게 하였다. 丙寅, 丁卯에 또 香閣에서 잔치하였다. 庚午에 향각에서 夜宴을 하는데 王이 壁上的 唐玄宗夜宴圖를 보고 左右에 이르기까지 과인이 비록소 國에 君臨하였으나 그 遊宴에 있어서는 어찌 감히 明皇에게 미치지 못하리오 하고 이로부터 밤에까지 이어 奇巧와 濫伎한 것이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²⁶⁾

위에서와 같이 충렬왕 14년, 21년, 그리고 22년에도 宴樂을 가까이 하였으며, 그 외에도 宴樂한 것은 아주 많다. 오히려 충렬왕 말년에 갈수록 더 遊興을 가까이 한 것이 「高麗史」 등에 기록되어 있다. 충렬왕이 수강궁에만 행차한 것도 「高麗史」 기록에만 근거할 때 27번이었다. 그것도 충렬왕 25년에 3번, 27년에 4번, 28년에 4번 등 충렬왕 말년에 갈수록 향연이 많았다. 그 외에 馬堤山·都羅山 등에 사냥, 竹坂宮에서 향연, 寺院에서의 향연 등 기타의 곳을 합치면 무수히 많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충렬왕 11년 이후 宴樂이 全無하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三藏〉·〈蛇龍〉의 창작 연대는 「고려사 절요」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高麗史」 列傳 吳潛條의

25) 呂增東, 앞의 논문, p. 23.

26) 「高麗史」, 卷三十 ~ 卷三十一, 世家卷三十 ~ 三十一, 忠烈王

사실이 「高麗史節要」 第二卷, 충열왕 25년 5월 乙巳에 기재되어 있다. 紀傳體 「高麗史」가 文宗 원년(1451) 8월 25일에 완성되었는데, 5개월 뒤 문종 2년 2월 20일에 「高麗史節要」가 制進되었음을 볼 때, 「高麗史節要」는 「高麗史」 자료의 부족을 메꾸는 데 더할 나위없는 자료가 된다. 또한 김종서는 「高麗史」 편찬에 참여한 다음 「고려사절요」를 편찬하는 때도 주인공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三藏〉·〈蛇龍〉의 창작 연대는 충열왕 5월이고, 처음 공식 가창 장소는 수강궁이다. 충열왕 25년에 수강궁에 행차한 것은 3번이다. 「高麗史」 世家·충열왕 조를 보면, 충열왕 25년 3월 壬辰, 王이 東郊에서 사냥하고 드디어 수강궁에 행차하여 날마다 宴樂을 일삼았다. 그리고,倡妓에게 銀 八斤을 賜하고, 또 두 銀瓶으로써 과녁을 삼아 쏘아서 맞히는 자에게 銀을 賜하였다. 또한 5월 乙巳, 丁巳에 壽康宮에 행차하였다. 수강궁은 「東國輿地勝覽」 卷十三 豐德 項에 보면

忠烈王四年作壽康宮于德水縣馬蹄山自是常觀獵于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강궁은 마제산에 있는데, 그곳은 사냥터이다. 사냥 후 수강궁에서 宴樂을 행했던 것이다. 郭預와 李崇仁의 詩²⁷⁾에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수강궁은 충열왕 4년에 지어졌고, 그 때 이후 그곳은 연회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바로 여기서 〈三藏〉·〈蛇龍〉이歌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三藏〉·〈蛇龍〉의 공식적인 첫 등장은 충열왕 25년 5월 乙巳이다. 그 이후에 〈双花店〉도 생겼으리라 본다.

Ⅳ. 三 藏

〈三藏〉(諸家は 〈双花店〉과 同歌로 봄)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와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 주동: “戲謔의 辭說이 자못 지나친 편이 있다.”²⁸⁾

정 병욱: “그런데 이 『쌍화점』에서는 순연한 육체적인 욕정의 세계를 읊고 있다. 욕정의 앞에는 윤리도, 권위도, 종교도 霧散하고 다는 법이다. 남은 것은 오직 분열된 자신과 동물적인 육체뿐이다. 궁정에도 사원에도 외국군의

27) 郭預詩 原上兩初霽 燒痕春色新 一鷺如箭疾 萬馬若雲屯 雉困還遭犬 驢迷不避人 長楊賦未就 慚愧諫垣臣 李崇仁詩 郊甸秋成早 君王玉趾臨 觀魚前事酒 請武睿謀深 跋角蒼江東 旌旗白日陰 詞臣多侍從 會見獻廣談(東國輿地勝覽 卷十三, 豐德)

28) 양주동, 앞의 책, p. 253.

막사에도 민가에도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그 절박한 현실을 풍자한 것이 곧 본가의 궁극의 주제인 것이다.²⁹⁾

려 증동: “感覺의인 現象에 快感을 求하는 劇으로서 情緒의인 것과는 아예 次元을 달리하는 肉情的 淫亂歌劇이다.”³⁰⁾

김 학성: 그 내용이 淫蕩한 君主 忠烈王을 中心으로 한 宮廷, 外人部隊, 宗教界, 一般民家の 肉體的 慾情의 世界를 象徵의으로 表現하여 그러한 現實을 痛烈하게 諷刺한 詩歌라는 指摘은, 本歌謠의 美意識이 諷刺를 基調로 한 喜劇美를 드러내 주고 있음을 말해준다.”³¹⁾

尹 敬洙: “全體人間的 解放을 主張하는 것으로 全人類愛가 숨어 있는 작품이다.”³²⁾

양 주동의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는 서 수생 등이다.³³⁾ 그러나 그렇게만 단정지을 수 없다. 그 회학적 사실은 표면적인 現狀에 불과하다. 정 병욱은 절박한 현실의 풍자가 본가의 궁극적 목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음란한 세태의 제시, 그 자체는 풍자가 될 수 있으나 절박한 현실의 풍자가 목적이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충열왕, 오감 등 행신의 무리, 그리고 口演者인 妓生이 오직 풍자를 위해서만 歌唱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려 증동은 歌劇으로써의 연극적인 입장에서 고구하였다. 감각적인 현상에 쾌감을 구하는 것은 표면적인 기능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연극적인 전개 과정을 가지고 갈등이 성립되고, 그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극적 구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김 학성은 양 주동, 정 병욱, 려 증동의 견해를 종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氏는 본가가 美的 범주 속에서 희극미를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고 하나, 희극미가 나타나는 것도 역시 표면적인 뜻에 불과하다. 윤 경수는 사랑의 상대자를 바꿔가며 情을 맺는 일을 享樂을 가지는 甘美롭고 自由로운 生活方式이며 외국인·중·帝王·술집 영감과 사랑이 전체 인간의 해방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본가와와는 동떨어진, 너무 미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 諸家の 견해들은 표면적인 뜻에 국한된 것이다. 《三藏》은 층위가 두

29) 정 병욱, 「한국고전시가연구」, 신구문화사, 1977, p.122.

30) 려 증동, 『雙花店』考究(其三), 국어국문학 53호, 1971, p.27.

31) 김 학성, 〈高麗歌謠의 美意識類型〉, 「韓國古典詩歌의 研究」, 원광대학 출판부, 1980, p.145.

32) 尹敬洙, 〈雙花店에 나타난 人間姿勢〉, 「현대문학」, 9권 2호, 1963, p.245.

33) 서수생, 앞의 논문, p.45.

렷하게 조직된 것이다. 그 층위는 表層, 中間層, 深層으로 3분된다. 표층은 현실을 떠나게 하여 다른 세계에서 노는 기능이다. 세계관 자체가 그 당시 순간적인 철학에 입각한 인과 관계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것은 바로 戲樂之具이다. 표층 의미의 기능은 「高麗史」卷71, 樂과 同 卷125 列傳, 간신 吳潛條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다. 조선 시대, <雙花店>에 대한 평가도 역시 이 표면적인 뜻에 불과하다.

頃歲有密陽朴浚者名知衆音凡係東方之樂或雅或俗靡不叢集一部書刊行于也而此詞漁父歌霜花店諸曲混載其中³⁴⁾

先是命西河君任元濬武靈君柳子光判尹魚世謙大司成成倪嗣改雙花曲履霜曲北轍歌中淫褻之辭至是元濬等撰進傳曰今掌樂院肄習³⁵⁾

今之爲歌者多出於桑濮如雙花店清歌之屬皆誘人爲惡此何等語也使風俗靡靡日氣於下其搖蕩敗理至有不忍聞者設使夫子復生其不在所改乎吾不可知也³⁶⁾

이와 같이 ‘混載其中’, ‘淫褻之辭’, ‘皆誘人爲惡’이라 하는 것은 모두 표층의 의미에서 놀이 기능이다. 즉 自由奔放한 男女相悅의 기능이다. 지금까지 연구는 거의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男女相悅의 대표라 할 정도로 정설화된 듯하나, 이것은 표면적인 뜻에 불과하다. 그 내면 깊숙히 파헤쳐 보아야 그 심원한 뜻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중간층의 뜻이다. 이 층은 도덕적 판단력에 호소하는 일종의 지성이다. 표층이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는 층이라면 중간층은 현실 세계로 돌아 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三藏>은 寺院(僧侶)의 타락·부패상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윤리·도덕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제 3층의 深層과 연결되어 있다.

新羅 불교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는 太祖 이래 불교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敎宗은 대대로 왕실의 歸依를 얻었고 禪宗은 崔氏 一門의 外護를 받아 더욱 昌盛해 나갔다. 그리하여 이 당시 불교는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 왕실, 權門勢族들 사이에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민중을 지배하는 데 불교가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불교 세력과의 유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34) 「退溪集」, 卷四十三, 書漁父歌後.

35) 「成宗實錄」, 卷第二四〇, 成宗二十一年, 五月.

36) 「海東雜錄」, 周世鵬答黃俊良書.

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특혜를 베풀고 존경을 표시해 왔다.³⁷⁾ 왕 및 권력층으로부터 극진한 보호를 받아 왔던 寺院은 관념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고,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고, 심지어 高利貸金業, 釀造業, 그리고 商行爲까지 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기와 燔造, 靑磁製造, 수공업을 행하며 願文 및 勸善符 등을 발급하기까지도 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현종 원년 : 禁僧人奴婢相爭又禁僧尼釀酒
 - 현종 12년 6월 : 司憲臺奏禁諸寺僧飲酒作樂
 - 인종 9년 6월 : …內外寺社僧徒賣酒鬻葱³⁸⁾
- 2). 충렬왕 3년 5월 : 遣僧大然于江華燔琉璃瓦…品色愈於南商所賣者云³⁹⁾
 - 충렬왕 15년 8월 : 元中書省牒求靑砂甕貧瓶⁴⁰⁾
- 3). 충렬왕 24년 정월 : 鹽稅自古天下公用今諸宮院寺社與權勢之家皆爭據執不納其稅國用不足…⁴¹⁾
- 4). 현종 19년 2월 : 僧尼誑誘愚民鳩聚財物輸以驛馬害莫大焉令官司嚴加禁斷
 - 忠宣王 4년 9월 : 置僧人推考都監禁諸寺勸化僧來集京師聚錢財肆爲穢行者⁴²⁾
 - 문종 원년 정월 : 諸州府郡縣逐年盛設輪經會盧外吏憑此聚歛以成弊今後醉飽娛樂之事並宜禁斷⁴³⁾
- 5). 충렬왕 2년 : 有一尼獻白苧布細如蟬翼雜以花紋公主以示商皆云前所未覩者問尼何從得此對曰吾有一婢能織之公主曰以婢遺我如何尼婢然不得已納焉⁴⁴⁾
- 6). 충렬왕 11년 3월 : 諸宮院寺社望占閑田國家亦以務農重穀之意賜牌然憑藉賜牌雖有主付籍之田並皆奪之其弊不貢…⁴⁵⁾
 - 충렬왕 12년 3월 : 今諸院寺社忽只應妨巡馬及兩班等有職人員殿前上守分遣田莊招集齊民引誘捐吏抗拒守令以至歐擲人作惡百端⁴⁶⁾
- 7). 충렬왕 7년 6월 : 慶州僧輩以凌羅路左右得藏人謂羅禪師凌首座娶妻居空者居半

47)

37) 金潤坤, <新興士大夫의 擡頭>,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74, p.146.

38) 『高麗史』, 卷八十五, 志 刑法二禁令.

39) 『朝鮮佛教通史』 下編 472面.

40) 『高麗史』, 世家卷三十 忠烈王 三.

41) 『高麗史』, 卷七十九, 食貨志, 鹽法.

42) 『高麗史』, 卷八十五, 刑法 禁令.

43) 『高麗史』, 卷四, 文宗 世家 元年 正月.

44)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后妃二.

45) 『高麗史』, 卷七十八, 食貨志, 田制, 經理.

46) 『高麗史』, 卷八十五, 刑法 志二.

47) 『朝鮮佛教通史』, 上編 291面.

- 女多男少僧皆作家寺傍以畜妻子⁴⁸⁾
- 松都亦然王宮甲第皆與佛宇相連王與後宮詒寺燒香無虛月設人關燃燈大禮皆依於佛王之第一子爲太子第二子則削髮爲僧雖儒林名士亦皆效之寺刹皆有藏獲多者或至千百爲住待者或擁婢妻其豪富勝於公卿置十二宗以掌釋教僧多有封君辟除者⁴⁹⁾

즉, 1) 寺院內에서 釀造와 僧侶의 飲酒, 賣酒 등이 심했다. 2) 寺院內에서 僧侶들이 靑瓦 및 靑磁를 造製하였다. 3) 궁원·권세가와 같이 寺院은 製鹽·販鹽에 있어서 그 稅를 不納하였다. 4) 僧尼가 閭巷民을 誑誘하여 莫大한 재물을 취득하고, 심지어는 京鄕 各地에 百姓에게 ‘願文’, ‘勸善符’를 賣却하여 寺財를 獲得하고, 또한 ‘經會’를 통해 取富에 급급하였다. 5) 寺院內의 僧侶의 婢가 織物을 生産하였다. 6) 寺院 및 귀족층이 殿前·上守를 田庄에 파견하여 지방의 관리에 대항하게 하고 수경에 항거하며, 歐擧하는 등 作惡이 심했다. 7) 임금의 말아들은 태자가 되고 둘째는 중이 될 정도였고, 비첩을 거느린 주지도 있으며, 그들의 호부함은 公卿보다 위에 있고, 중이 봉군되어 다닐 때는 辟除를 소리치는 자가 많았다.

이와 같이 寺院은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부패상이 극에 달했으나, 그 당시 寺院의 상황을 알만도 한 것이다. 三藏寺에 충열왕이 懸鑑國師로 하여금 있도록 명한 것을 보아도 三藏寺는 왕의 비호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⁵⁰⁾ <三藏>은 寺院의 부패상을 고발해 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귀족층의 倫理不在와 僧侶의 破戒荒淫性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近者有達官數老妓鳳池蓮者曰爾曹惟富沙門是從今之士大夫召之何來之遲也答曰今之士大夫取富商之女爲二家否則妾其婢子我輩苟擇經素何以度朝夕座者有愧鮮于樞…

51)

윗 글은 “都近川類制…”인 李齊賢의 解詩 뒤에 해설을 붙인 것이다. 역시 당시 승려가 破戒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기에 기생들은 高官에게 보다. 沙門에게 따르는 이가 많았다.

그러므로 <三藏>은 그 당시 沙門의 사회상을 알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48) 「東國輿地勝覽」, 卷三十八, 濟州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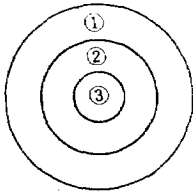
49) 「慵齋叢話」, 第八卷

50) 忠烈王命住三藏社 其師曹溪圓悟和尚亦論之乃, 後歷主朗月雲興禪源等社, (益齊亂黨卷第七, 碑銘).

51) 「益齊亂黨」, 卷第四, 小樂府.

고려사회상을 해아려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深層은 내면적 깊숙하게 숨어 있기에 작자는 모를 수도 있다. 즉 무의식 속에 존재해 있는 것을 후대 독자(학자)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인간적 진실, 사회적 진실을 말한다. 深層에서는 무엇인가 냉철해지고 진지하고 그리고 냉엄한 관찰자·분석자가 볼 수 있는 것이다. 〈三藏〉의 深層은 바로 人間性의 상실을 나타내고 있다. 〈三藏〉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三藏)

- ① 자유분방한 남녀상열(놀이의 기능)
- ② 寺院의 타락 부패상
- ③ 인간성의 상실

V. 蛇 龍

「高麗史」樂志 俗樂條에 〈三藏〉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蛇龍〉은 지금까지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三藏〉에 부수되어 歌名만 다루어질 뿐 〈蛇龍〉 작품 그 자체를 다룬 적은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시 오 잠이 지은 이 작품은 충렬왕 25년 5월 수강궁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歌唱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三藏〉이 〈雙花店〉의 가사뿐 아니라 曲으로 전승된 만큼의 힘은 가지지 못한 듯하다. 이 작품 마찬가지로 表層은 놀이의 기능을 갖고 있다. 오잠의 무리가 男粧別墅에게 가르치어 충렬왕 앞에서 부르게 한 것이다. 아부아침을 위한 놀이의 기능이다.

중간층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 보기로 한다. 충렬왕이 王位에 나아가던 시기는 고려사에 있어서 한 전환기에 속한다. 안으로는 權臣의 기반이 무너지고 밖으로는 강대한 몽고 세력이 들어올 때이었다. 또한 원과 함께 일본 정벌을 2차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그에 따른 재정적 궁핍은 말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충렬왕은 39세(1274. 5)에 원에서 元成公主(齊國大長公主)와 결혼하고, 한 달 후 父王(元宗)이 昇遐하여, 還國한 뒤 그 해 8월에 왕위에 오른 것이다. 뒷날 史臣이 평한 바와 같이 遊幸·畋獵·宴樂에 탐혹하여 王后(公主)

와 세자의 諫言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좌우에 있는 群小輩의 讚言을 믿고, 嫡子인 忠宣王을 폐하고, 그의 族姪을 세우려고까지 하였다.⁵²⁾ 이러한 와중에서 충열왕파와 세자(충선왕)파의 알력은 극심하였다. 이러한 때 <蛇龍>이 불리어졌다. <蛇龍>이 불리어진 충열왕 25년을 전후한 상황을 알아 보기로 한다.

충열왕 22년(1296) 9월 왕과 왕후는 세자의 혼사에 臨幸하기 위해 원에 갔다. 그 해 11월 혼사는 燕京에서 이루어졌다. 충열왕과 왕후는 원에서 세자의 혼사를 치른 뒤, 충열왕 23년(1297) 5월에 환국하였으나 왕후는 돌아온 지 半朔만에 薨去하였다. 이로 인해 원에서 奔喪은 세자는 母后가 병을 얻게 된 것이 內寵을 누리며 中外에 橫恣하던 無比와 그의 연관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宦者 陶成器 등 40여명을 귀양 보내고 將軍 尹吉孫, 內僚 金仁竟 등을 가두었다. 또한 無比 등의 巫蠱事를 鞫問하여, 巫女와 僧僧의 저주 事狀이 드러나자, 이들 모두를 베어버렸다. 이에 충열왕도 충격을 받았다. 충열왕 23년(1297) 10월, 세자가 원에 갑에, 뒤이어 왕은 趙仁規·印侯 등을 원에 보내어 세자에게 傳位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세자는 충열왕 24년(1298) 정월에 寶塔實憐公主와 환국하였다. 충선왕은 즉위하자 대규모 官制改革을 단행하는 등 革新政治를 시도하였다. 또한 신진관료와 친숙해지려고 하였다. 충선왕은 즉위년(1298) 正月에 崔崐·朴全之·吳漢卿·李瑱 등의 신진관료에게 綾絹紬紵 15匹을 하사하고, 2월에 燃燈會 행사로 奉恩寺에 갔을 때 왕은 위 4학사에게 직접 술을 권하면서 오직 너희들만은 直言으로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고 특별히 분부하였다.⁵³⁾ 또한 父王의 청탁도 거절한 적이 있었다.⁵⁴⁾ 그러나 7개월 만인 8월 17일에 다시 충열왕이 복위하였다. 충선왕은 이로부터 약 10여년동안 燕京生活을 하게 되었다. 이에 前王(충선왕)에게 원한을 품은 吳那·宋璘·宋邦英·宋均·石冑 및 그의 3子(天補·天卿·天琪), 王維紹·韓愼·金天錫·金忠義 등 群小輩가 충열왕을 둘러싸고 前王을 誣陷하여 父子의 離間을 꾸준히 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前王의 환국을 기도하던 洪子藩·崔有滄·柳庇 등 重臣의 음직임

52) 金岸基, 「新編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 530.

53) 「高麗史」卷33, 世家·忠宣王 即位年 2월에 辛未燃燈王 奉恩寺 賜文翰學士 崔崐·朴全之·吳漢卿·李瑱尙乘鞍馬, 翌日大會, 群臣上壽以至四學士王使之前賜酒謂之曰惟爾諸學士, 直言無隱

54) 「高麗史」世家 忠宣王 即位年 3月條에 “太上王爲妃金氏奴婢惠內傳于王王曰臣於即位之日爲民請命于天革去宿弊內傳其一也臣不敢奉命”이라 하였음.

을 견제하는 한편 寶塔實隣公主를 瑞興侯 璵에게 改嫁시켜 前王을 폐하고 璵으로 왕의 뒤를 계승하게 하도록 충열왕을 음적였다.⁵⁵⁾ 이러한 상황에서 〈蛇龍〉이 불리어졌다.

高麗史樂之蛇龍條有…此歌即蛇龍原辭依此辭意則兩心之兩當是君子之誤
(槿花樂府)⁵⁶⁾

위의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蛇’는 吳潛을, ‘龍’은 충열왕을 뜻하고, ‘太山岑’은 國事를 뜻함이라. 즉 吳潛・宋邦英・石冑 등의 무리가 충열왕을 둘러싸고 國家政事를 좌우한다는 洪子藩・崔有淦・柳庇 등의 말을 오직 왕이 짐작하여 달라는 뜻이다. “兩心之兩當是君子之誤”가 사실에 부합된다면 ‘兩心’은 충열왕의 心일 것이다. 이것의 타당함은 후대의 시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개야미 불개야미 준둥부러진 불개야미 압발에 疔腫나고 뒷발에 쫓귀난 불개야미
廣陵심재 너머드려 가람의 허리를 마르무려 추려들고 北海를 건너닷 말이 이
서이다. 님아 님아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珍本靑丘永言)

大川바다 한가운데 中針緇針짜지거다.

열나른 沙江놈이 굶뜨된 사엇매를 굶뜨치 두려배여 一時에 소퇴치고 귀껴여 배
닷말이 이서이다.

님아 님아 온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珍本靑丘永言)

심외산 세배파회 감도라 휘도라 드러

五六月 낮계죽만 살얼음 지권 우회

즌서리 섯거티고 자취눈 디엿거늘 보았노다

님아 님아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松江歌辭에서)

위 시조의 終章에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語句는 〈蛇龍〉중의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의 뜻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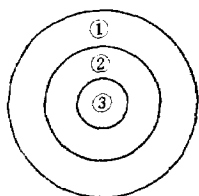
그러므로 중간층의 의미는 왕권의 미약과 당파 싸움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심층의 의미는 주체성과 질서의식의 부재 현상이다.

위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5) 金倅基, 앞의 책, p. 525.

56) 成鎬周, 〈高麗俗謠의 再照明과 研究史的 反省〉, 『睡蓮語文論集』 第12輯, 1985, p. 70에서 재인용.



(蛇 龍)

- ① 아부아침(놀이의 기능)
- ② 왕권의 미약과 당과 싸움하는 현실
- ③ 주체성과 질서 의식의 부재

Ⅵ. 結 論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三藏〉은 〈雙花店〉의 번역시가가 아니다. 〈三藏〉이 原詞이고 〈雙花店〉은 후대에 생성되었다.

(2) 〈雙花店〉의 作者가 吳潛이 아니라, 〈三藏〉・〈蛇龍〉의 作者가 吳潛이다.

(3) 〈三藏〉・〈蛇龍〉의 제작 연대는 충렬왕 25년(1299) 5월이며, 공식적으로 처음 가창된 것은 충렬왕 25년 5월 乙巳이다.

(4) 처음 공식적으로 〈三藏〉・〈蛇龍〉이 가창된 장소는 壽康宮이며, 이곳이 宴樂의 주무대가 되었다.

(5) 〈三藏〉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表 層 : 자유 분방한 男女相說(놀이의 기능)

中間層 : 寺院의 타락 부패상

深 層 : 인간성의 상실

(6) 〈蛇龍〉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表 層 : 아부아침(놀이의 기능)

中間層 : 왕권의 미약과 당과 싸움하는 현실

深 層 : 주체성과 질서 의식의 不在

(7) 〈三藏〉・〈蛇龍〉은 宮中 俗樂으로 가창되던 것이 후대에 민간으로 전파되어 갔다. 그리고 가사가 부분적으로 다른 노래에 삽입되어 갔다.

가사의 출입이 빈다한 여타의 속악도 原詞의 여부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